

가족이란?

The bond that links your true family is not one of blood, but of respect and joy in each other's life.

(Richard Bach)

가족을 진정으로 연결하는 끈은 혈통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리처드 바크)

2016년 7월 8일 금요일 저녁 나는 장충체육관에서 뜻밖의 즐거움을 맛보았다. 라이브 콘서트를 즐기면서 또한,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은 행운의 덩이였다. 가수 소명의 라이브 콘서트에서다. 나의 측면에서 보면, 소명의 라이브 콘서트는 대성공이었다. 물론 관객으로 참석한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지만….

우선 제목이 인상적이였다. ‘소☆들의 합창’이라니! 아버지 소명, 아들 소유찬, 딸 소유진, 그들의 가족관계를 알고 나니 ‘소☆들의 합창’이 맞았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현장에서 보고 느끼기에 이들의 콘서트 제목에 ‘소☆들’이라고 ☆도 달만 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스마트 시대, 스마트 폰 홍수 속에서 가족의 대화가 단절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조차도 각자의 스마트 폰만 바라보고 고개 숙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한 무

대 위에서 몸으로 노래로 소통했다. 정말로 부럽고 보기 좋은 장면이었다. 소설가 리처드 바크(Richard Bach)가 말한 진정한 가족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내가 이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각자의 소중한 꿈을 이루었고, 그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아버지는 무명가수 시절 수많은 좌절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자식들에게 내색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과거에 겪었을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들은 같은 분야에서 서로의 꿈을 이루었기에 그 공감의 정도가 더 크리라 생각한다.

같은 혈통을 타고나야 가족이 되는 것이 가족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러나 가족은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꿈을 찾아 이루어가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이 가진 꿈을 이루도록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수 소명의 콘서트를 통해 소설가 리처드 바크가 말한 진정한 가족을 발견하고, 가족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한다.